

간세포암의 치료에서 수술적 절제와 고주파 열치료술의 비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박은규, 김정철, 김현종, 김호현, 성진식, 허영희, 고양석, 조철균

배경 및 목적: 간세포암의 치료는 간절제술이 근치적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고주파 열치료술은 간절제술에 대한 대안적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간세포암의 일차 치료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간세포암의 치료에 고주파 열치료술이 간절제술과 비슷한 치료 성적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 이에 간세포암에 대한 간절제술과 고주파 열치료술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간세포암으로 진단 받고 간절제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일 간세포암으로 크기가 5 cm 이하이거나, 다발성인 경우 3개 이하의 암 결절을 보이며 최대 직경이 3 cm 이하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간절제술을 시행 받은 129명의 환자와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은 59명의 환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상인 환자의 임상 특성, 치료 합병증, 재발률, 전체 생존율, 무병 생존율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결과: 간경변은 간절제 환자군에서 96명(74.4%)으로 모두 Child-Pugh class A였으며, 고주파 열치료 환자군은 48명(84.2%)으로 43명이 class A(89.6%), 5명(10.4%)은 class B로 양군간 차이를 보였다($p=0.002$). 간절제술 후 3명(4.1%)의 환자가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고주파 열치료술 후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합병증은 간절제술 환자군의 17.8%, 고주파 열치료술 환자군의 10.5%에서 발생하여 간절제 환자군에서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206$). 재발률은 간절제술(45.6%)보다 고주파 열치료술(65.8%)에서 높았다($p=0.031$). 간절제 환자군과 고주파 열치료 환자군의 1년, 3년, 5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3.3%, 80.6%, 66.3%와 94.4%, 74.0%, 74.0%였고, 평균 전체 생존 기간은 각각 51.8 ± 2.1 개월, 53.0 ± 3.1 개월이었다. 양군간의 전체 생존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80$). 1년, 3년 무병 생존율은 간절제 환자군은 71.7%, 52.8%였고, 고주파 열치료 환자군은 65.7%, 23.7%로 간절제 환자군의 무병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7$). 무병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문맥 고혈압의 유무($p=0.048$)와 혈청 태아 단백의 상승($p=0.115$)이, 전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재발 유무($p=0.036$)와 문맥 고혈압의 유무($p=0.036$)가 독립 예후 인자로 예측되었다.

결론: 간세포암의 치료는 간기능 및 전신 상태가 수술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간절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주파 열치료술도 전체 생존율 면에서는 간절제술과 필적할 만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수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대안적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